

2026.06.30.

[석유화학 정기평가 결과]

상반기 실적 반등에도 하반기 업황 약세 전환으로 신용도
하방압력 지속 전망

장미수 기업1실 책임연구원 최주욱 기업1실 실장
02.368.5471 02.368.5303
msjang@korearatings.com jwchoi@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KR')는 2026년 상반기 석유화학 업·다운스트림 업체 9개사의 정기평가를 완료하였다. LG화학의 신용등급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여천NCC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A2-에서 BBB+(안정적)/A3+로 하향하였으며, 롯데케미칼은 AA-(안정적)/A1에서 AA-(부정적)/A1으로 등급전망을 변경하였다. 한화토탈에너지스(AA-(부정적)/A1), SK지오센트릭(AA-(부정적)/A1), 에이치디현대케미칼(A(부정적)/A2), 한화솔루션(AA-(부정적)/A1)은 기존의 '부정적' 등급전망을 유지하였다.

하반기 공급망 정상화에 따라 역내 공급부담이 재차 증가하며 업황이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의 영업실적이 저하되면서 등급 하방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026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KR은 금번 정기평가를 통해 저하된 이익창출력, 높아진 재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LG화학, 여천NCC의 신용등급을 하향하였으며, 롯데케미칼은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다.

LG화학, 롯데케미칼은 2022년 하반기 다운사이클 진입 이후 이익창출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영업현금흐름 대비 과중한 투자지출로 인해 차입부담이 확대되었다. 다각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였던 이차전지 관련 사업도 중국발 경쟁강도 심화, 캐즘으로 인한 수요 둔화 등으로 실적이 저하되며 각사 신용도 하방압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천NCC의 경우 기초유분 중심의 제품포트폴리오로 중국발 공급부담 심화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으며 대규모 영업적자가 지속된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해 작년 8월부터 NCC #3기를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 크래커 설비 가동률과 원재료 재고자산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올해 3월 제품가격 급등으로 인한 긍정적 래깅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토탈에너지스, SK지오센트릭, 에이치디현대케미칼은 상반기 실적 반등에도 하반기 업황 약세 전환으로 연간 실적 개선 수준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구조개편 진행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실적 개선 추이, 유상증자를 비롯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 등급전망을 유지하였다.

[표 1] 2026년 석유화학산업 정기평가 결과

회사명	종전(2026.01.01)		금번(2026.06.30)		비고
	등급	Outlook	등급	Outlook	
LG 화학	AA+	부정적	AA	안정적	등급하향
롯데케미칼	AA-	안정적	AA-	부정적	등급전망 변경
한화토탈에너지스	AA-	부정적	AA-	부정적	
SK 지오센트릭	AA-	부정적	AA-	부정적	
여천 NCC	A-	부정적	BBB+	안정적	등급하향
HD 현대케미칼	A	부정적	A	부정적	
한화솔루션	AA-	부정적	AA-	부정적	
금호석유화학	A+	안정적	A+	안정적	
SKC	A	안정적	A	안정적	

주) 무보증사채 또는 기업신용등급(ICR) 기준
자료) KR

2. 사업환경 및 실적 동향

KR은 ‘2026년 Industry Credit Outlook[석유화학]’에서 역내 신증설부담 지속에 따른 스프레드 부진, 영업적자 및 미흡한 수익성을 전망하였다. 실제로 1-2월까지 제품 전반의 스프레드 개선이 미미하였다. 에틸렌의 경우, 스팟스프레드가 \$150/톤 미만으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벤젠·SM 등도 작년 하반기부터의 개선세를 유지하였으나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월말 미국-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업황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3월초 나프타 가격이 급등한 후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며 제품가격이 뒤따라 오른 가운데, 전쟁 이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원재료가 생산에 투입되면서 긍정적 래깅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3-4월 다수 석유화학 업체가 영업흑자로 전환하며 1분기 실적이 반등하였다. 주요 NCC업체는 가동을 하향 조정 및 저율 가동, 정기보수 조기실행, 대체 나프타 확보 등을 통해 가동중단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계열기반·다각화 등을 통한 정유 사업과의 연계도 수준이 업체별 공급망 차질 대응력에 있어 차별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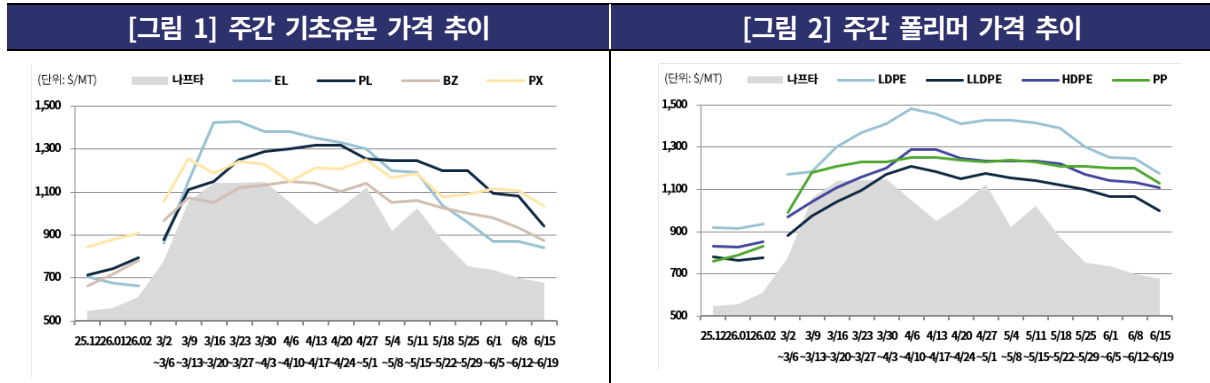
•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업황 변동성 확대

3월 2주차부터 전쟁 장기화 우려, 생산차질 및 공급 축소 가능성을 토대로 화학제품 전반의 가격이 나프타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스팟 스프레드가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4월 중순부터는 미국-이란 협상 논의에 따라 나프타 및 제품 전반의 가격이 일부 하락한 가운데, 나프타 가격 등락에 따라 스프레드가 증감하였다. 6월 들어서는 스프레드 전반이 안정화되며 변동성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5월부터 제품별 수급상황 등에 따라 스프레드 추이가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틸렌의 경우, 5월 가격 하락세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면서 스프레드가 감소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다운스트림 수요 부진, 중국의 역내 공

KR SPECIAL COMMENT- 석유화학 정기평가 결과

급 지속,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수요 관망세 전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반면, PX는 PTA 등 다운스트림 수요를 토대로 5월 스프레드가 상승하였다. 범용 폴리머(PE, PP)의 경우, 그동안의 높은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해소 가능성 등으로 수요가 관망세로 전환한 가운데, 중국 내 생산설비 일부의 정기보수로 수급이 정체되면서 스프레드 하락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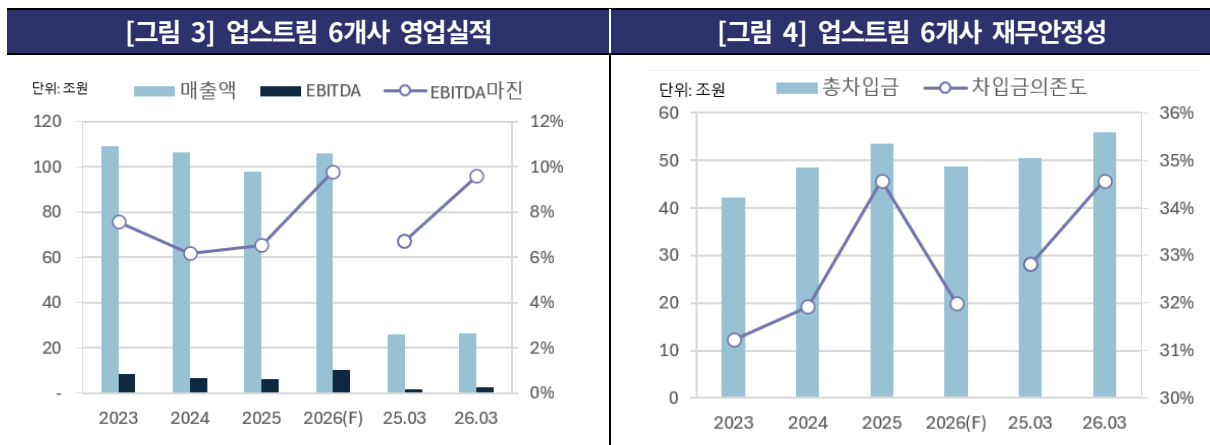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Platts, ICIS

• 3월 긍정적 레깅효과에 의한 실적 반등이 1-2월 부진을 상쇄한 반면, 운전자분부담 확대로 차입금 증가

2025년 업황부진으로 석유화학사 전반이 영업적자 기초를 유지하였으나, 2026년 1분기 실적은 3월 레깅 효과를 토대로 반등하였다. 화학제품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전쟁 이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나프타가 생산에 투입되면서 긍정적 레깅효과가 발생하였다. LG 화학 석유화학 부문,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SK 지오센트릭, HD 현대케미칼이 영업흑자로 전환하였다. 여천 NCC는 제품가격 급등을 즉시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장기공급계약 구조, 타이트한 보유 원재료 재고자산 등으로 3월 긍정적 레깅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아 영업적자가 이어졌지만 규모는 전분기 대비 축소되었다.

2025년 석유화학사 전반의 영업현금창출력 부진, 투자부담 지속 등으로 차입부담이 상승하였다. 2026년 1분기는 실적 호조에도 원재료 및 제품가격 상승으로 운전자분투자가 급증하며 3월말 기준 차입금이 재차 확대되었다.



주) LG화학(연결), 롯데케미칼(연결), 한화토탈에너지스(별도), 에스케이지오센트릭(별도), 여천NCC(별도), HD현대케미칼(별도)
 자료) 각사 (연결)감사보고서, 한국기업평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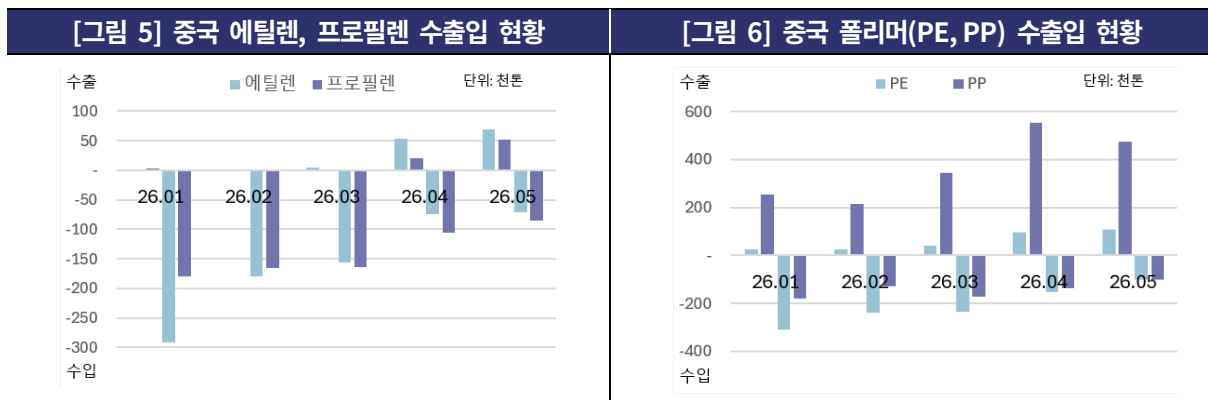
3. 하반기 석유화학업 전망 및 모니터링 요인

공급망 정상화에 따라 역내 공급부담이 재차 증가하며 업황이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업계 전반의 영업실적이 저하되면서 등급 하방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회복 속도, 국내 석유화학 구조개편 진행 상황 등이 업계 공통의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다.

• 공급망 회복에 따른 업황 약세 전환 전망

2~3분기 고가 나프타의 생산 투입에 따라 래깅효과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기간 내 공급망이 정상화될 경우 제품가격 하락 및 스프레드 감소, 재고손실 등이 발생하며 수익성을 재차 제약할 수 있다.

3월부터의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각화된 피드스탁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크래커 가동률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탄, 석탄 등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정유설비와의 높은 연계도를 가진 COTC 설비도 중국 정부의 비축유 등을 토대로 원재료 조달의 어려움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6년 5월까지 중국의 올레핀 기초유분 및 범용 폴리머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였고 4~5월 해당 추세가 강화된 것을 감안하면, 공급망 차질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 양의 값은 수출을, 음의 값은 수입을 의미
자료) KITA

중전 이후에도 중국 중심의 역내 공급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수 프로젝트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된 점, 감유증화 정책기조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신증설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2026~2028년 중국 에틸렌 capa의 순증가 규모가 19백만톤/년 수준으로 전망되어 동기간 수요 성장을 상회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중동의 경우 전쟁 복구 과정에서 공급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이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유럽 석유화학 산업에 먼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5월 중순 기준 중동 내 피격으로 가동중단된 설비 CAPA(에틸렌 기준)가 최소 7백만톤/년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쟁 피해 복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신증설부담이 전쟁 이전 대비 축소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향후 공급망 정상화, 중동·중국의 신증설투자 집행 규모·속도, 물가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급상황과 구조적 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국내 구조개편 진행상황**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간, 자원 등이 소요되면서 국내 구조개편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쟁 이전 최종 승인을 받은 대산 1호(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3월 20일 최종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여수 1호(롯데케미칼-여천NCC, DL케미칼, 한화솔루션)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산 1호의 경우, 6월초 롯데케미칼의 대산 NCC사업이 신설법인 롯데대산석화로 물적분할되었으며, 9월초 HD현대케미칼에 흡수합병될 예정이다. 여수 1호는 여천NCC가 롯데케미칼의 여수 NCC사업, DL케미칼의 PE, 한화솔루션의 여수 PE·석유수지 사업을 흡수합병하여 NCC 설비를 통합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외부 실사와 타당성 검토작업을 거치는 중이다.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하반기 중 최종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4. 업체별 모니터링 요인

2026년 6월말 기준 석유화학업체 9개사의 업체별 모니터링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LG화학(AA(안정적))

에너지솔루션부문 중심의 실적변동성 완화 및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부담 통제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석유화학부문의 중국발 공급부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솔루션부문의 ESS 사업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설비 초기 가동 및 수율 안정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중단기간 전사 실적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창출현금에 기반한 재무구조 개선 여력은 크지 않지만, Capex 조절을 통해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산효율화를 통해 재무부담을 일정 수준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가 위치한 대산·여수 석유화학 단지 내 구조개편이 진행 중으로 이에 따른 사업·재무구조 변동 수준 또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 롯데케미칼(AA-(부정적)/A1)

구조개편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및 재무부담 완화 수준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다. 대산·여수의 기초화학부문

(NCC)이 연결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초화학 부문의 외형이 감소하는 반면, 중장기 비용구조 개선,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자산·부채 이관에 따라 연결 차입금이 최소 1.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조개편 금융지원을 통해 재무완충력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수 산단의 구조개편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가운데, 대산산단의 신설법인 HD 현대케미칼향 유상증자 참여, 이관되는 차입금에 대한 자금보충약정 제공 등이 재무부담 개선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전사 이익창출력 개선을 위해서는 역내 과잉공급 상황 해소를 통한 수급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한화토탈에너지스(AA-(부정적)/A1)

양호한 실적 기초 유지 및 영업현금흐름 회복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수준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년 1분기 미국-이란 전쟁 발발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래깅효과 및 재고 관련 이익이 크게 발생하면서 영업실적이 큰 폭 개선되었다. 2026년 하반기 이후 유가가 재차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하겠으나, 중단기간 양호한 정제마진이 유지되면서 에너지부문이 석유화학사업의 실적변동성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적 개선에 따라 주주사에 대한 배당이 재개될 수 있고, 2027년 이후에는 Capex 규모가 재차 확대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제약할 수 있다. 영업창출현금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수준,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진행 상황과 실적변동성 완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SK지오센트릭(AA-(부정적)/A1)

2026년 실적 개선 수준, 비핵심자산 매각 및 구조개편을 통한 재무부담 완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5년 차입금 상환, 2026년 1분기 영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재무부담이 완화되었다. SK지오센트릭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원료 공급 차질에도 SK에너지 등 계열 기반의 조달안정성을 토대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 상반기까지 양호한 실적 기초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 하반기 이후 수익성이 축소되더라도 연간 영업실적이 2025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공급부담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지속되겠으나, 투자지분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부담 완화 계획 추진 경과, 공급망 정상화 속도 및 국내 산업 구조개편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5) HD현대케미칼(A(부정적)/A2)

구조개편을 통한 사업·재무구조 변화가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다. 롯데대산석화(롯데케미칼의 대산 NCC 사업) 흡수 합병 및 설비 통합운영을 통한 설비 가동률 향상, 원가효율성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되나, 수익성 개선효과와 함께 실질적인 제품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재무 측면에서는, 롯데대산석화의 자산·부채가 편입되며, 가동 중단 NCC 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 및 자본감소를 영구채 발행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양사로부터 각 0.6조원의 유상증자도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단기간 내 대규모 자본이 확충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피흡수합병법인의 차입금이 편입되는 점, 영구채 발행 시 실질상환부담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이 재무부담 완화 수준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사업 통합 과정에서 투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재무부담이 재차 상승할 수 있다.

6) 여천NCC(BBB+(안정적)/A3+)

구조개편을 통한 사업·재무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유분 중심의 제품포트폴리오에 롯데케미칼의 여수 NCC 사업, 주주사로부터의 다운스트림 일부 제품 등이 편입되는 것은 동사 사업안정성 제고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업황 변동성 아래 실질적인 실적개선에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기존 장기공급계약 중심의 사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재무 측면에서는, 합병 등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설비 가동중단 시 발생가능한 대규모 손상차손을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조개편 및 사업 통합 과정에서 설비투자부담이 소요될 수 있다.

7) 한화솔루션(AA-(부정적)/A1)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실적 개선 수준, 여수 산단의 구조개편 진행상황, 다양한 자구계획 효과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다. 시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기반 아래 미국 카터스빌 태양광 공장 완공에 따른 수직계열화된 공정의 시너지 창출,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우수한 시장지위, EPC 장기계약 확대 노력 등을 토대로 중단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실적 회복을 전망한다. 케미칼 부문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 구조개편 여수 1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여수 PE 및 석유수지 사업을 여천NCC에 통합시킬 계획이다. 관련 자산·부채 제외로 인한 재무 구조 변화, JV항 추가 재무지원 부담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유상증자, 자회사를 통한 자본성 자금조달, 계열사 지분 유동화, 유희자산 매각 등 다양한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8) SKC(A(안정적)/A2)

화학 및 이차전지 소재부문의 수익성 개선 추이, 중단기 투자부담, 재무구조 개선작업 효과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화학 및 이차전지 소재부문의 이익창출력 부진으로 전사 영업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부문은 공급망 정상화 및 업황 추이가, 이차전지 소재부문은 충분한 ESS항 물량 확보 여부, 말련 신공장의 수율 안정화를 통한 원가부담 완화 수준 등이 향후 실적 개선 속도에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차전지소재 해외 신증설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중단기 자본적지출이 과거 3개년 (2022~2024) 대비 축소되겠으나, 신규공장 가동 안정화, 반도체 소재 신사업 투자 등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상회하는 투자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상반기 유상증자로 채무상환, 자회사 애플릭스 출자 등을 목적으로 1.17조원을 조달하였으며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안의 내용과 효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9) 금호석유화학(A+(안정적))

주력부문의 전방수요 회복 수준, 수익성 개선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NB Latex 재고가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SBR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와 합성수지 부문의 범용 ABS 및 동남아 판매 비중 축소,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별첨] 업체별 등급변동요인

업체명	등급/등급전망	상향변동요인	하향변동요인
LG 화학	AA(안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입금/EBITDA ≤ 1.5 ✓ 부채비율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중한 투자 부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지연 ✓ EBITDAmargin < 12
롯데케미칼	AA-(부정적)/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입금/EBITDA ≤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입금/EBITDA > 3.5
한화토탈에너지스	AA-(부정적)/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입금/EBITDA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안정성의 변화를 유발하는 과도한 배당 등 주주비용 발생 ✓ 순차입금/EBITDA > 4
SK 지오센트릭	AA-(부정적)/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의존도 ≤ 35 ✓ 순차입금/EBITDA ≤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는 등 원가경쟁력 약화 ✓ 차입금의존도 > 35 ✓ 순차입금/EBITDA > 3.5
여천 NCC	BBB+(안정적)/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편 등을 통한 사업안정성 제고 및 영업이익 기초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영업적자 발생 등 사업안정성 저하 ✓ 차입규모 및 재무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HD 현대케미칼	A(부정적)/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입금/EBITDA ≤ 6.5 ✓ 차입금의존도 ≤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입금/EBITDA > 6.5 ✓ 차입금의존도 > 45
한화솔루션	AA-(부정적)/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입금/EBITDA ≤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입금/EBITDA > 3.5
SKC	A(안정적)/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입금/EBITDA ≤ 3.5 ✓ 차입금의존도 ≤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진한 수익성과 미흡한 재무구조 지속 ✓ 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 강화
금호석유화학	A+(안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력 강화 등 사업안정성 제고 ✓ 실질적 무차입구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황 하락으로 영업수익성 저하 ✓ 순차입금/EBITDA > 1.5 ✓ 차입금의존도 > 25

주) 1.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SK 지오센트릭, HD 현대케미칼, 한화솔루션의 상향변동요인은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변경하는 요인임

2. LG 화학의 EBITDA는 AMPC 포함 기준

자료) KR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이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황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가를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